

15장. 20세기 초의 응용심리학의 떠오름과 심리학의 확장, 심리학의 미래 조망


15-2 file no.1

2007년 2학기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강의
15주차 강의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종합!

20세기초의 응용심리학의 떠오름과
심리학의 확장, 심리학의 미래

2



14-1-1

심리학사 15주 2회 차 강의를 시작하겠다. 5주 1회 차 강의에서는 20세기 초에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응용심리학의 떠오름과 심리학의 확장을 설명했다. 15주 2회차 강의에서는 심리학의 미래적인 측면을 이론체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15-2 file no.2 생략/ 15-2 file no.3 생략

15주 2회 차의 학습목표는, 심리학전반의 학문적 주제에 대한 포괄적 개관에 대해 정리해 보고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의 현재 주제가 무엇이며 남은 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5. 심리학의 역사적 발전의 이론체계적, 이론심리적 평가



- 5.1. 개관
- 5.2. 심리학의 전반적 경향
- 5.3. 상이한 관점들
- 5.4. 마음 개념의 확장
- 5.5.

14-1-4

1. 개관

15-2 file no.4

심리학의 이론체계적 발전의 역사를 보면, 먼저 현대심리학의 다양성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심리학이 독립된 과학으로 형성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여러 다양한 주제 분야로 구성된 학문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현대심리학은 비교적 초기의 이론체계들인 분트의 심리학, 기능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의 이론체계에서 제기된 문제들, 방법들 연구 전략들이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다.

더 넓게 보자면 데카르트가 처음에 던졌던 4개의 기본 문제가 - [1] 마음이 무엇이고, 행동이 무엇인가, [2]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구분 관계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심리학의 위치가 무엇인가, [3] 결정론 대 자유의지의 문제, [4] 마음과 신체 상호작용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문제인데 - 현대 심리학에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다.

5.1. 개관

- 현대심리학의 다양성: 다양한 연구 분야로 구성된 학문으로 발전
- 현대심리학은 초기의 체계에서 제기된 문제들, 방법들, 연구전략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 데카르트의 4개 기본 문제 지속:
 - 마음, 행동?
 - 자연과학, 인문과학?
 - 결정론, 자유의지?
 - 마음-신체 상호작용?

14-1-5

15-2 file no.5

- 심리학의 중심문제들이란 철학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경험적 접근의 세련화
- 초기와 같이 어떤 한 입장에 대한 절대적 고수를 하기로는 절충적 입장을 취함
- 경험적 접근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실험적, 경험적이 아닌 특징을 심리학이 지님
- 하나의 통합된 이론체계나 학파보다는 더 작은 단위의 심리적 메커니즘이나 특정 영역 심리현상에 대한 관점 중심으로 전개됨

14-1-6

15-2 file no.6

철학에서 제기되었던 심리학의 중심문제들에 대한 경험적 접근의 세련화가 있었고 심리학이

초기와 같이 어떤 한 입장을 절대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점차 (행동주의 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 등 어떤 한 학파의 심리학을 절대적으로 고집한다고 하기 보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지고, 하나의 통합된 이론체계나 학파보다는 더 작은 단위의 심리적 메커니즘이나 특정영역의 심리현상에 대한 관점 중심으로 이론이 전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큰 이론, 큰 틀, 거대 담론을 제시했지만 점차 작은 영역으로 쪼개져 들어가면서 작은 영역 작은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 심리학이 독립된 과학으로 형성되어서 초기에는 구조주의와 같은 이론체계 시도,
- 그러나 20세기 초기에는 행동주의처럼 이론체계 형성의 회피,
- 그러나 행동주의의 C. Hull 등의 경우는 이론체계 형성에 주안점 둠
- 현재에는 통일된 이론체계 구성보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절충주의적 전개
- 최근에는 심리학 전반을 흐르고 있는 인지주의, 생물학적 환원, 사회적 요소의 강조,
- 진화심리적 접근의 부활 등이 그 핵심. 응용심리의 정착화

14-1-7

15-2 file no.7

심리학이 철학에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별개의 과학으로 형성된 초기 심리학에서는 분트의 ‘구성(구조)주의’와 같은 철학과 심리학의 다리를 놓는 그런 이론체계로 시작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행동주의 심리학’은 이론체계의 형성을 기피했고, 특히 스키너처럼 이론체계가 불필요하다고 본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행동주의 심리학이 이론체계를 완전히 외면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자 C. Hull 같은 심리학자의 경우는 상당히 잘 가다듬어진 이론체계를 강조했었다고 볼 수가 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여, 심리학은 현재는 하나의 통일된 이론체계를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절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심리학의 주제에 따라서 다른 관점과, 다른 접근,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심리학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인지주의와 생물학적(즉 신경학적) 환원과, 그와는 반대로 사회적 요인들의 강조 등이 한 경향이고, 진화심리적 접근이 다시 부활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응용심리 연구가 심리학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하나의 진로, 경력, 직업으로서 정착되게 되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다.

2. 심리학의 전반적 경향



5.2. 심리학의 전반적 경향

- A. 접근들의 주기적 순환
 - 1. objective-naturalistic 주기(cycle)의 순환
 - 2. subjective-dualistic 주기(cycle)의 순환:
- B. diversification: 다변화
 - 예전처럼 심리학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아이디어들, 이론들, 접근들
- C. 분야별 연구/관심의 중심 상이함
 - 이론중심, 방법론 중심(실험심리 등), 주제 중심(사회심리 등), 적용현장 특성중심(예: 산업심리)
- D. 응용의 강조, 응용과 순수 구별의 약화

14-1-8

15-2 file no.8

다음에 [심리학의 전반적 경향]을 생각하면,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주제적 측면, 방법론적 측면에서 무엇이 강조되어 오고 어떤 식의 대립된 입장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접근들의 주기적 순환]의 측면을 생각해 보면, 플라톤부터 지금까지 객관주의와 자연주의가 주기적으로 순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관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서로 교대로, 순환적으로 하나가 성했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성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된 것이 심리학 역사의 전반적 이론적 추세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에 [다변화(diversification)]가 이루어져 왔다. 심리학의 초기에 분트심리학은 의식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 후에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심리학 주제들이 나름대로 조각조각 나눠져서, 다변화되어서 각각 다른 그룹, 다른 학파에, 다른 입장으로 연구하였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아이디어들, 더 많은 이론들과 접근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연구관심의 중심]이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심리학 분야 쪽에서 보면 주제보다 이론중심, 방법론 중심으로 강조점이 주어지는데 반해서, 사회심리 분야에서는 심리학의 주제에 강조점을 둔 주제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산업심리 분야에서는 적용현장, 특성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끝으로, [응용의 강조, 응용과 순수 구별의 약화]의 문제인데, 심리학이 점점 발전되면서 응용과 기초 순수 심리학과의 구별이 약화되면서, 점차 심리학의 응용이 더 세를 얻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5.3. 상이한 관점들

- A. <심리학의 중심 주제>
 - 마음:
 - 구성주의, 인지주의, 정신분석학, 인본주의
 - 행동:
 - 행동주의, 인지주의, Hebb, 형태주의
 - 의식:
 - 구성주의, 인지주의(부분적)
 - 뇌, 신경과정:
 - 생물, 생리, 신경심리학, 인지주의

14-1-9

15-2 file no.9

3. 상이한 관점들의 전개

마음, 행동, 의식, 뇌라는 [심리학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관점들을 제시했느냐를 보면, [마음]에 대해서 구성주의의 입장과 인지주의의 입장, 정신분석학의 입장, 인본주의의 입장이 조금씩 또는 상당히 많이 달랐다. [행동]과 관련하여서 보자면, 인간의 행동, 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주의적 입장, 인지주의적 입장, Hebb와 같은 신경심리학적 입장, 형태주의적 입장이 행동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달랐다. 그 다음에 [의식]과 관련해서 보면, 구성주의에서 보는 의식의 개념과 인지주의에서 보는 의식의 개념이 서로 달랐다. 그 다음에 [뇌 신경과정]을 보면 아주 환원주의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절충주의적인 입장도 있어서, 생물 또는 신경심리학에서 보는 뇌의 신경과정과 인지주의에서 보는 뇌의 신경과정이 서로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 B. <심신론>
 - 이원론:
 - 정신분석학, 인본주의
 - 일원론:
 - 행동주의, 인지심리, 신경심리
 - 절충론:
 - 형태주의심리
- C. <마음의 역동성>
 - 역동적:
 - Leibniz, 정신분석, 제3세력심리학
 - 수동적:
 - Locke, 행동주의
 - 절충적:
 - 형태주의, 인지주의

14-1-10

15-2 file no.10

다음으로 [심신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심신론에 대해서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였던 것은 정신분석학이나 인본주의적 입장이고, 일원론적 입장을 취한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과 인지심리적인 입장과 신경심리학의 입장이고, 형태주의 심리학파들은 절충적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음의 역동성] 측면에서 마음이 역동적이나 아니면 수동적이냐를 생각해 보자면, 역동적으로 본 입장으로는 17세기의 라이프니츠의 입장이나, 정신분석학적 접근, 제3세력 심리학의 인본주의 심리학 등이 있었다. 마음을 수동적으로 보고 마음을 백짓장 식으로 개념화한 것은 17세기의 로크나, 20세기의 행동주의적 경험주의의 입장이었고, 형태주의 심리학이라든지 인지주의 심리학 입장은 마음이 역동적, 수동적 양면을 다 지니고 있다는 절충적 입장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 *행동주의 유형
 - Tolman: 인지적 행동주의
 - Skinner: 급진적 행동주의
 - Hebb : 생물적 행동주의
 - 인지주의: 인지적 행동주의의 부분과 생물적 행동주의 인정

14-1-11

15-2 file no.11

다음에 각 이론체계에 들어 있는 [행동주의의 유형]을 보면, Tolman의 인지적 행동주의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주의를 조금 섞어놓은 그런 입장이 있나 하면, 스키너의 급진적 행동주의가 있고, D. O. Hebb같은 생물적, 신경심리적 행동주의가 있었다. 반면에 인지주의는 인지적 행동주의의 구분과 생물적 행동주의를 인정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E. <지식의 생득(자가생산)성 대 후천적 획득>

- 경험주의- 후천성:
 - 행동주의
- 합리론- 선천성: 생득론
 - 정신분석 (그러나 비합리적 지식),
 - 인본주의(반성적)
- 절충적:
 - 인지주의, 형태주의

14-1-12

15-2 file no.12

[지식의 생득성 대 후천적 획득] 면에서 보자면, 즉 마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지식이 생득적으로, 원천적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어지느냐, 아니면 후의 경험을 통해 학습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행동주의 입장이었고, 반면 선천적, 생득론적인 측면을 강조한 입장은 정신분석학과 인본주의였다. 인지주의와 형태주의가 선천성과 후천성의 절충적 입장을 택했다. 언어학자 촘스키의 영향을 받은 일부 심리학자들은 아직도 생득론을 우선시 하고 있다. 한편 정신분석학 전통은 생득적 대, 후천적 논의보다는 무의식과 같은 비합리적 생득적 지식 형성 강조에 더 초점을 두었다.



● F. <유심론 대 유물론>

- 유심론:
 - 희랍철학, 중세철학, 독일의 합리론,
 - 구성주의, 정신분석, 인본주의,
- 유물론:
 - 프랑스철학, 영국경험주의,
 - 행동주의, 신경심리
- 절충론:
 - 형태주의,
 - 인지심리 (그러나 유물론으로 기울음)

14-1-13

15-2 file no.13

그 다음에 [유심론 대 유물론]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의 문제에 대하여, 유심론을 강조한 것은 희랍철학, 중세철학, 독일의 합리론, 구성주의, 정신분석, 인본주의 등이었다고 볼 수 있고, 유물론을 강조한 입장은 프랑스 철학, 영국 경험주의, 행동주의, 신경심리학을 들 수가 있겠고, 절충론적인 입장은 형태주의 심리학, 인지심리학 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 G. <심리학의 방법론>
 - 전통적, 통념적 과학적 방법론 (유물론적 경험주의) :
 - **행동주의**
 - 비 전통적 과학적 방법론 (비유물론적 경험주의) :
 - **정신분석, Brentano의 현상학적 심리학, 인본주의**
 - 절충주의:
 - **구성주의, 인지주의**

14-1-14

15-2 file no.14

그 다음 [심리학의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통념적 과학적 방법론, 그러니까 엄격한 객관적인 실증주의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이고 그런 면에서 유물론적 경험주의를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다. 반면에 비전통 과학적 방법론, 비유물론적 경험주의, 그러니까 엄격한 객관적 과학적 방법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입장이고, 아니면 Brentano의 현상학적 심리학의 입장, 인본주의의 입장도 후자의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전통적인 엄밀 과학과 비전통적 과학적 방법론을 둘 다 인정하는 절충적 입장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구성주의 심리학’과 ‘인지주의 심리학’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전통적 통념적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다.



- H. <내성(자기관찰법)의 과학적 타당성>
 - 타당, 훈련 필요:
 - **구성주의, 정신분석학, 인본주의**
 - 적합하나 문제 있음, 체계화 및 훈련 필요:
 - **인지주의**
 - 부적합:
 - **행동주의**
 -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의 오류**

14-1-15

15-2 file no.15

그 다음에 [내성, 즉 자기관찰법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반추해서 내성해서 그 결과로 나타난 의식이 떠오른 내용을 가지고 심리학의 이론을 형성한다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성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구성주의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심리학, 인본주의적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내성이라는 것이 심리학에 필요하고 적절하긴 하지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유보사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인지주의 심리학적 입장이다. 반면에 내성 자기관찰법은 심리학에서 방법론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입장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윌리엄 제임스도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I. <과학적 이해>
 - 연역적 설명, 행동적 통제
 - 이론체계의 엄밀함
 - -> 과학적 합의 도출 쉬움:
 - **행동주의, 인지주의**
 - 해석의 일관성, 직관적 앎
 - 이론체계의 비 엄밀성
 - -> 합의 도출 곤란:
 - **정신분석학, 인본주의**

14-1-16

15-2 file no.016

그 다음에 [과학적 이해]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 보자. 연역적 설명을 하고 행동을 통제해서 실험을 조작해서 이론체계의 엄밀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과학적 합의의 도출이 쉬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동주의의 심리학의 입장이었고, 또한 인지주의적 입장이었다. 반면에, 해석의 일관성이 있으며 직관적 앎을 제공하고 이론체계가 엄밀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합의 도출하기가 곤란한 체계로 간주될수 있는 것이 정신분석학과 인본주의 심리학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 J. <과학적 유형>
 - 처방적 과학:
 - **Wundt, Maslow, Skinner**
 - 기술적, 서술적 과학:
 - **일반 실험, 이론 심리학자들의 주류**
- K. <심리학의 통합적 이론 제시 필요성, 가능성>
 - 부정적 입장: 소형이론지지:
 - **행동주의; 극단의 입장 = Skinner**
 - 긍정적 입장: 통합적 이론 제시:
 - **Hull, Freud, Gestalt 심리학**
 - 절충적 입장: 인지심리학
 - **문제 해결 연구(AI)=통합적 이론; 기타영역 = 소형이론**

14-1-17

15-2 file no.17

[과학적 유형]과 관련해서 생각하여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처방적(prescriptive)

과학입장에서 심리학 이론을 전개한 사람들이 분트와 매슬로우, 스키너 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심리현상을 단순히 기술, 서술적 접근을 하려고 한 것이 일반 실험심리학자, 이론심리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심리학에서 [통합적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통합적 이론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에 섰던 이론체계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이었다. (극단의 입장은 스키너와 같이 이론이 필요 없고 그냥 조각조각의 행동을 기술하면 끝난다, 이론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입장이 행동주의의 입장이었다). 반면, 통합적 이론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였지만) 이론체계를 제시한 C. Hull이라든지,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라든지,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이었다. 한편 절충적 입장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주로 전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양쪽을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인 통합적, 포괄적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문제 중심으로 작은 이론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다.



- L. <과학적 방법론>
 - 단일방법론:
 - 구성주의, 행동주의, 정신분석
 - 방법론적 다원성:
 - 인지주의 및 기타 다른 심리학파, 이론체계
- M. <심리학의 학문적 통일성: 인문과학, 자연과학>
 - 자연과학:
 - 행동주의, 정통적 인지심리
 - 자연과학 표방:
 - 구성주의, 정신분석학
 - 인문과학: 인본주의
 - hybrid science: 인지과학적 인지심리

14-1-18

15-2 file no.18

[과학적 방법론]의 부면을 보자면, 즉 단일한 방법론을 쓸 것인가 여러 방법론을 쓸 것인가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성주의, 행동주의 정신분석학은 단일방법론을 강조했고, 인지주의 및 기타의 다른 심리학 접근이나 이론체계들은 방법론적 다원성인 여러 방법을 적용하여 현상의 복잡성. 또는 현상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한 방법론을 써야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심리학의 학문적 통일성]이 있느냐와 [심리학이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냐]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적 입장을 추진한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전통적, 고전적 인지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연과학을 표방했지만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구성주의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인문과학을 강조한 입장은 인본주의 심리학이었는데, 심리학은 인문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한 것이 인본주의이고, 인지과학적, 인지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들이 연결 되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5.4. 마음 개념의 확장



- 인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마음'의 개념은 주변 학문의 영향을 받아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 마음은 →
 - 환경 세상에 분산/확장된
 - 몸과 분리되지 않은 마음
 - 환경과 하나된 마음
 - 매개적 도구/상징과 불가분의 마음
 - 새로운 인지 개념의 접근
 - 인간 인지의 본질
 - Narrative Principle (이야기 원리)
 - 진화심리학적 설명의 중요성의 증가

14-1-19

15-2 file no.19

4. 마음 개념의 확장

해가 갈 수록 점차 심리학에서의 [마음] 개념이, 인지과학의 발전과 주변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확장되기 시작 했다. 그래서 마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 세상에 분산되고 확장된(extended) 마음이며, 마음이 작용할 때는 몸하고 떨어져서 작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전개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마음을 논할 때에 뇌가 아닌 몸까지 다 포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환경과 떨어질 수 없이 환경과 하나 된 마음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개념을 가지고 심리학을 논하려는 입장이 전개되었고, 마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야기(narratives)를 만들어가는 그런 원리에서 움직인다는 입장들과, 진화심리학적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제기가 되었다.



마음에 대한 현재의 관점

- Embodied Mind (환경내 신체에 구현되는 마음)
- Situated mind (상황지워진 마음)
 -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제약되는 마음
- Distributed mind (인공물과 타인에)
 - Extended mind (확장된 마음)
- Interactive activity(활동,행위)로서의 마음,
 - 역동적 시간 상의 궤적으로서의 마음
 - 역동적 모듈 시스템들의 집합체로서의 마음
 - 정서가 포함된 인지 (Hot Cognition)

14-1-20

15-2 file no.20

이러한 추세는 그 관점의 연원이 철학에서 비롯된, 체화된 마음, 확장된 마음, 또는 체화된 인지(Embodied Mind; Extended Mind; Embodied cognition) 접근인데 (<http://philinst.snu.ac.kr/thought/38/02.%20EC%9D%B4%EC%A0%95%EB%AA%A8.pdf>), 그러한 추세의 현재의 관점은 구체적인 한 개인이 신체를 가지고 (Embodied), 몸을 가지고 환경 내

에 신체를 통해서 구현되는(Embedded) 마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상황 지워진 (situated) 마음, 그러니까 환경, 상황에서 마음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제약되는 마음의 측면을 강조하고, 인간의 마음이 머릿속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비게이션 기구라든지 컴퓨터, 핸드폰 등에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분산된(distributed) 마음 그렇게 되어서 인공물(artifacts)에 확장된 마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공물과 상호작용하는(interactive) 활동행위로서의 마음(mind as acts), 그 다음에 어떤 한 시점에서 모든 마음의 특성이 결정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dynamic), 시간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궤적으로서의 마음, 그래서 그걸 역동적 모듈시스템들의 집합체로서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냉철한 이성(cold cognition)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정서나 동기가 포함된 (hot cognition) 마음의 입장으로 마음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 Mind is,
- not : a-temporal
- but: unfolds over time
- not: series of discrete states
- but: flow of continuous states
- not: serial actions of discrete variables
- but: multiple simultaneous interactions
- not: (all) innate, preprogrammed, pre-wired
- but: self-organization, emergence of structures

14-1-21

15-2 file no.21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음은 시간적이 아니라 시간 경과적이고, 마음은 날개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이산적 상태가 아니라 연속적 상태이며, 별개의 변인들의 계열적 행위가 아니라 생득적인 미리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가-조직화하며 구조를 창출하여 가는 다양한 동시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



- 심리학의 앞으로의 가장 큰 변화 추세는 심리학에서 신경생물적, 신경생리적 접근의 중요성의 급증
- 미래에 뇌영상 기법이 계속 발전하면서
 - 근적외선(NIRS) 방법 등의 뇌영상 기법의 발전과 user-friendly 기구의 발전은
 - 심리학의 이론적 탐구와 응용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 그런 시점에서 심리현상을 신경적 상태/과정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접근의 비중이 더욱 증가될 것이고
- 여러 응용 분야에서의 신경심리적 응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14-1-22

15-2 file no.22

5. 종합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의 앞으로의 가장 큰 변화추세로는, 먼저, 신경생물적, 신경생리적 접근의 중요성이 급증하여 신경과학과의 연결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뇌영상기법이 계속 발전하면서 심리학 이론 탐구에 변화가 오고 계속해서 신경적 접근의 비중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심리학은 신경과학과의 연결을 통한 학문적 탈바꿈의 또 다른 변형이 가능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문화적, 해석학적 접근이 재구성도 가능해질 것이고 로보틱스 등의 발전과 인공물 기계와 인간지능의 거리가 좁혀짐으로 해서 나온 개념이 새로운 재구성이 시도될 것이다.



- 그러한 상황에서 심리학은 신경과학과의 연결을 통한 학문적 탈바꿈의 또 다른 변형이 가능하고
- 이에 대항하는 사회-문화적, 해석적 접근의 진지한 재구성도 가능하여 질 것이다
- 로보틱스 등의 발전과 인공물/기계와 인간 지능의 거리가 좁혀짐으로 인하여 (특이점) 마음 개념의 새로운 재구성이 시도될 것이며

14-1-23

15-2 file no.23



- 이와 함께 거론 될 것은 심리학에서
 - 종래의 물리학을 모델로 하여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연과학으로써 커운 심리학과
 - 인문사회과학을 모델로 하여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을 하여 meaning 중심의 인간의 심리를 이해 하고 적용하려는 심리학의
 - 대립이 표면화 할 것이고
 - 이에 따른 심리학의 새로운 재구성이 시도 될 것이다

14-1-24

15-2 file no.24

이와 함께 자연히 거론된 것은, 물리학을 모델로 하고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해서 자연과학으로 성장해 온 심리학과, 인문사회과학을 모델로 해서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을 해서 인간 삶의 의미적(meaning) 측면을 강조해온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립이 표면화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심리학의 새로운 재구성이 시도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 심리학은 한 수준 높은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

6. 맺는 말



7. 맺는 말

- 현대심리학의 출발은 Descartes의 틀
- 경험주의적 접근의 정당화: Hobbes, Locke
- 현대적 일원론의 출발: 프랑스의 기계론적 유물론
- 활동으로서의 마음, 심적 과정의 강조 기초: Leibniz, Kant
- 심리학의 발전사는 서구 문명의 발전사, 철학의 발전사를 반영
- 심리학의 기본문제는 희랍철학 틀, 특히 Aristotle에 의하여 제기된 주제들임
- 이러한 발전사 내에서의 부조화, 모순, 비일관성을 심리학은 그대로 내포함

14-1-40

15-2 file no.40

이제 심리학사 및 심리학 이론체계에 대하여 종합하여 언급을 해보겠다.

현대심리학의 출발은 데카르트의 틀로 출발했고, 경험주의적 접근의 정당화. 그러니까 철학에서 제기된 심리학의 주제들을 경험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험주의 연결이 있었다. 그것이 흄이나 로크 등의 경험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현대적 심리학 이론의 출발이 프랑스의 기계론적 유물론 위에서 이루어지고, 활동으로서의 마음, 심적 과정을 강조한 그런 기초가 라이프니츠나 칸트에 의해서 주어졌었다. 심리학의 발전사는 서구문명의 발전사, 서구 철학의 발전사를 반영해서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심리학의 기본문제는 희랍철학의 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틀에 의해서 제시된 주제들이 그대로 이어져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심리학의 발전 역사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화와 모순, 비일관성을 현대의 심리학은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의견의 불일치, 접근 틀의 불일치 및 논쟁은 학문적 발전의 전, 중간 단계들일뿐
- -과학적 학문의 발전에서 의견의 불일치는 필연적, 특히 가장 복잡한 자연현상의 하나인 심리학의 경우 물질성과 심리성 양면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러함.
- 심리학은 이에 대한 개념화의 세련화, 경험적 접근의 세련화의 발전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심리학을 철학, 물리학, 생리학에서 독립하게 한 것 :
 - 경험주의
- 그러나 그 경험주의의 적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계속 심리학체계들 사이에 있음:
 - 극단 행동주의, 반 극단 인본주의;

14-1-41

15-2 file no.41

심리학 내의 의견의 불일치, 접근 틀의 불일치, 접근 틀 간의 논쟁은 심리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학문적 충분한 발전의 전 단계 또는 중간 단계일 뿐이고, 대립적 관점들의 논란을 통해서, 즉 정반합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과학적 학문의 발전에서의 의견의 불일치는 필연적인 것이고, 심리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복잡한 자연현상의 하나인 심리현상을 다루는 심리학의 경우에 물질성과 심리성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심리학은 연구 주제에 대한 개념화에 방법론적으로 경험적 접근의 세련화를 이루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심리학을 철학, 물리학, 생리학 등에서 독립하게 한 것은 방법론적 경험주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주의의 적용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계속 심리학 이론체계들 사이에 있었다. 그 예로 극단의 경험주의를 강조한 행동주의와 다른 쪽 극단의 인본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일원론-대-이원론/
- 마음의 활동성-대-수동성/
- 마음의 생득적-결정론 대 후천적-환경적-결정론/
- 유물론적-경험주의 대 비유물론적 경험주의/
- 의 각각의 양 극단 사이의 다양한 입장이 전개됨,
- 현대 심리학의 체계란 통일된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주제, 방법론, 해석적 틀에서 다양성을 지님
- 그러나 심리학이 하나의 경험과학이라는 점에서는 합의를 하고 있음

14-1-42

15-2 file no.42

이미 설명한 것처럼 심리학 내에서 이원론의 대립이 있었고 마음의 활동성 대 마음의 수동성 관점의 대립이 있었고, 마음의 생득적 결정론 대 후천적 환경 결정론의 대립이 있었고, 유물론적 경험주의 대 비유물론적 경험주의의 입장들이 있었다. 이런 각각의 양극단 사이의 다양한 입장이 전개되고, 현대심리학의 체계란 통일된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주제 방법론 해석 틀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심리학에 여러 논란거리가 있는 것은 심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현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심리학이 하나의 경험과학이라는 점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 심리학사와 이론체계에 대한 탐구의 목적은
 - 이러한 다양성과 불일치, 갈등 등이
 - 역사적으로 어떤 연원에서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 그 혼란함을 명료화시키며,
 - 이론체계 간의 그 유사성과 차이점의 파악,
 - 현재의 심리학의 진행 방향에 대한 조감도 획득과,
 - 심리학 이론체계의 부침과 흥망 쇠함 등에 대한 역사적 이해,
 - 그리고 심리학을 비롯한 과학함(Doing Science)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인류의 history of evolution of ideas 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임

14-1-43

15-2 file no.43

[심리학사]와 [이론체계]에 대한 탐구의 목적은, 이런 다양성과 불일치 갈등 등이 역사적으로 어떤 근원에서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혼란함을 명료화 시키며, 이론체계(접근 또는 학파) 간에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현대심리학의 진행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획득하고, 한 심리학 이론체계의 흥함과 쇠함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심리학을 비롯한 ‘과학함(Doing Science)’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심리학사와 이론체계가 연구되고 강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상에서 생각(아이디어)의 진화 역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학사와 이론체계라는 분야가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 **심리학이:**

-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인간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 자체를 연구 주제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 인지심리학은 과학학의 (science of sciences) 한 핵심 분야임
 - 고로 인지심리학, 심리학은 “과학하기”의 본질을 밝혀내는 과학학의 메타학문일 수 있음
- 물질성과 심리성을 공동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위수준의 학문임.

14-1-44

15-2 file no.44

심리학이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인간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자체를 연구 주제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인지심리학은 과학의 한 핵심 분야라는 것,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인 과학자가 하는 것이고, 과학자가 자신의 [인지]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학(the science of sciences)] 중의 하나가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이 되겠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의 인지심리학], [과학의 심리학], [과학의 인지과학] 등이 성립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과학학의 본질을 밝혀내는 [과학의 메타학문]일 수가 있고 물질성과 심리성을 공동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위 수준의 학문]일 수가 있겠다.



● **그러한 특성의 인식은**

- 심리학의 그간의 발전 역사에서
- 물리학, 화학에서와 같은 통일적인 체계가 부족하였음에 대한 비판적, 혐오적, 부정적, 비관적 **인식이 아니라,**
- 과학(과학하기)의 본질에 대한, 심리학의 주제의 복잡성에 대한,
- 심리학이 상위 추상수준의 과학임에 대한
- 인식을 바로 갖도록 하자는 것임

14-1-45

15-2 file no.45

그러한 특성의 인식은, 심리학의 그간의 발전 역사에서, 물리학 화학에서와 같은 통일적인 체계가 부족하였음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하여 부정적 비판, 심지어는 혐오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학을 한다는 것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심리학 주제의 복잡성에 대한, 즉 심리학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심리학이 상위 추상 수준의 과학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 심리학 자체는 심리현상의
 - 생물적 기초와 주관적 의미(지향적) 기초의 양면이 공존하기에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이의
 - 정체성의 갈등을 끊임없이 겪고 있고 혼란이 일어나지만
- 그리고
 - 계속 변화하고, 분화되고, 재구성되고, 인접학문과 교호하며
 - 학제적 학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14-1-46

15-2 file no.46

심리학 자체는 그 연구 대상인 심리현상에 객관적 생물적 기초와, 주관적 의미 기초의 양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즉 심리현상은 생물로서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그런 측면과, 의미(meaning)를 만들어 내는,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 의미가 되는) 그런 양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이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체성의 갈등을 끊임없이 겪고 있고, 혼란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관점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계속 변화하고 분화되고 재구성되고, 주변의 다른 인접한 학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복합학적인(Complex Systems) 또는 융합적, 학제적 학문의 과학적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심리학이

- 서구 사회, 서구 문화에서는
- 인류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해주던 기독교적 종교적 초월적 지침이 사라진 이후,
- 사람들은 그 대신 과학에 그 것을 묻게 되었고,
-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개인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이 그 답을 제공하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예전에는 목사에게, 사제에게 묻던 것을 이제는 심리학자에서, 특히 임상심리, 상담심리학자, 발달심리학자에게 묻고, 사회적 문제는 사회심리학자에게 묻게 되었다.

14-1-47

15-2 file no.47

심리학이 서구사회의 서구문화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해주던 기독교적인 종교적 초월적인 지침이 사라진 이후에,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은 과학에 묻게 되고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개인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이 그 답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제나 각성한 승려에게 묻던 것을, 이제는 심리학자에게 묻고 특히 임상심리학자, 상담심리학자, 발달심리학자, 인지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 등에게 묻게 된 것이다.



- 과학이 종교를 대체하였고,
- 서구에서는 종교의 역할을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하는 것이다.
- 사제와 목사 대신에 심리학자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 이미 서구사회는 심리학적 사회가 되어
- 심리학적 사회 속에서 태어나 발달하고, 청춘을 겪고,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늙어가며, 또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14-1-48

15-2 file no.48

옛날에 종교가 인류사회를 지배했는데, 17세기 이후 과학이 종교를 대체했다면, 서구에서는 종교의 역할을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대체했고, 사제나 목사 대신에 심리학자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서구사회는 심리학적 사회가 되어왔고, 심리학적 사회 속에 태어나서, 발달하고 청춘을 겪고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늙어가며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동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세가 점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보겠다.



- 그러나 동양사회에서는
- 아직은 심리학의 과학화, 심리학의 대중화, 심리학의 사회화, 심리학의 전문화, 심리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대중의 관련 지식 수준과 과학적 사고 수준이 낮은 탓에
- 그 인식 수준이 낮고,
- 역사적, 사회적 역동으로 인하여 심리학의 필요성을 인식도, 적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 그것이 이제 서서히 전환점에 다가가고 있다.
 - ← 문화의 발전에 뒤따라서

14-1-49

15-2 file no.49

그러나 동양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심리학의 과학화, 심리학의 대중화, 심리학의 사회화, 심리학의 생활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중의 관련 지식수준과 과학적 사고수준이 낮기 때문에, 또는 다분히 그 사회의 역사적 변화의 역동으로 인해서, 심리학의 현실 적용의 필요성을 아직은 제대로 인식하지도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러한 상태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전환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심리학의 중요성, 필요성의 인식이 점차 더 증가되고 있다.



- 세계적으로
- 심리학의 대중화,
- 그리고 응용심리학과 학술적 심리학의 차별화의 무너짐이 일어나고 있다.
- 다른 한 면에서는 심리학과 뇌(신경과학)의 연구의 연결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14-1-50

15-2 file no.50

세계적으로 심리학의 대중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응용심리학과 학술적 심리학의 차별화가 무너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한 면에서는 심리학과 뇌. 신경과학 연구의 연결이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자연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추구와,
- 인문사회과학으로서의 humanity 중심의 심리학의 추구가,
- 뇌와 실험과학이 드러내주는 현상과
- 그에 의한 설명, 인본주의적, 현상학적 접근,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 드러내어주는 주관적 의식적 체험의 심리현상.
-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설명의 이론적 체계화 시도는 계속 되겠지만,
- 앞으로의 방향은 통일적 이론체계가 아니라,
- 다원적 방법론, 다원적 수준에서의 접근, 다원적 설명, 그리고 설명의 충분성, 적절성의 기준도 다원적 양상을 띠리라고 본다.

14-1-51

15-2 file no.51

자연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추구와, 인문사회과학으로서의 인문성 중심의 심리학의 추구와, 뇌의 실험과학이 드러내주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접근에서 드러내주는 현상과, 그에 의한 설명, 인본주의적 현상학적 접근,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 드러내주는 주관적, 의식적 체험의 심리현상 그리고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설명의 이론적 체계화 시도는 계속 되겠지만 앞으로의 심리학의 방향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론들을 통일적 한 틀로 다 묶어놓는 그런 이론적 체계가 아니라 다원적 방법론, 다원적 수준에서의 접근 다원적 설명 그리고 설명의 충분성, 적절성의 기준도 점차 다원적인 양상을 지니리라고 본다.



- 인간의 마음이란 복합체계이다.
- 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Complex System이다.
- 이러한 체계에의 이해, 분석, 기술, 설명, 이론체계화의 노력은 이전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처럼,
- 단순한 단일 체계에 의하여 모든 것을 다 포괄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14-1-52

15-2 file no.52

인간의 마음이란 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복잡계(Compex System)이다. 이러한 체계에 대한 이해, 분석, 기술, 설명 및 이론체계화의 노력은 이전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처럼 '단순한 단일체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려는 그런 시도는 앞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



- 인간의 마음!
- 끊임없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던져주는 지적 탐구의 보고인 것 같다.
- the last frontier of sciences!

같다.

14-1-54

15-2 file no.54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던져주는 지적탐구의 보고 원천인 것 같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탐색하고 설명해야 될 최후의 개척지라(last frontier)라고 생각될 수 있다.



- 그런데, ...

14-1-55

15-2 file no.55

그런데 도대체 이런 심리학사와 이론체계와 학생인 나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심리학사, & me?

생각의 진화 역사
 (a history of evolution of ideas) 로서의
 심리학의 역사에 대한 조망을 갖고,
 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idea의 작은 벽돌 한 장씩 엮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잘못할 수도 있으며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재발견, 재생성되는,
 그러기는 하지만 참으로 exciting 한 지적 연결고리의
 끊임없는 흐름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런 길고 긴 역사적 지적 흐름의 맛을 본
 지적으로 깨어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닌
 한 수준 올라간, 젊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14-1-56

15-2 file no.56

심리학사와 이론체계의 강의를 통해서, 인류문화에서의 '생각'의 진화사의 한 예로, '학문적 생각의 진화 역사로서의 심리학의 역사'에 대한 조망을 갖고, 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에, 각 시대마다 작은 벽돌 한 장씩 엮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잘못할 수도 있었으며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재발견되고, 재생성 되는, 또 그렇긴 하지만 참으로 지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exciting) '지적 연결고리'의 끊임없는 흐름인 것을 학생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런 길고 긴 역사적 지적 흐름의 맛을 보고, 그리고 그런 대열에 동참하여 작은 벽돌 하나를 엮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강의를 듣기 이전보다는 지적으로 더 깨어 있고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동안 여러분이 많은 자료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지루함을 참고 읽어주고 또 들어주고 공부해준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잘못 설명한 것, 잘못 자료를 올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하여 [바담 風]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

러분들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바람-風]으로 이해해서 전체적인 조감을 얻고 새로운 지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 학기 강의 전체를 마치겠습니다.